

[이슈&ETF]

S&P, Nasdaq의 '패스트 트랙' 도입 영향

- S&P, Nasdaq의 패스트 트랙 도입. Nasdaq은 도입 완료했으며, S&P는 의견 수렴 중
- 기존 지수 편입 종목은 비중 축소로 비중 조절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
- S&P의 기간 단축(12개월→6개월)은 보호예수 해제 물량에 완충 장치로 작용

S&P, Nasdaq의 패스트 트랙 도입 영향

미국 신규 IPO 종목의 대형 지수 편입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올해 상장 예정인 초대형 IPO 종목의 경우 조기 편입 고려 대상이다. 과거 S&P 500, 나스닥 100 등 대표 지수의 경우 대형주의 IPO 이후 지수 편입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했다. S&P 500 지수는 '상장 후 12개월 경과' 조건을, 나스닥 100 지수는 '3개월의 관찰 기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 IPO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수 편입을 허용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로 인해 신규 편입 종목의 조기 지수 편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Nasdaq은 기존 3개월 관찰 기간을 상장 후 약 15거래일 내 편입 가능으로 변경하였고, 유동 비율 기준도 면제했다. 적용 대상은 나스닥 100 내 시가총액 40위 수준 IPO로, 현재 해당 종목은 부킹홀딩스(시가총액 1,202억 달러)이다.

표 1. Nasdaq 패스트 트랙 관련 내용 요약

항목	기존	변경 검토안
편입 시점	3개월의 관찰 기간, 정기 검토/종목 교체 시	상장 후 약 15거래일 내 편입 가능
최소 유동주식비율(WF)	최소 0.10 필요	유동 비율 폐지
적용 대상	전체 기업 동일 기준 적용	시총 기준 Nasdaq100 상위 40위 수준 IPO
지수 산정 방식 업데이트 승인		2026.02.27
효력 발생	-	2026.05.01

자료: Nasdaq

S&P는 현재 의견 수렴 기간으로,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변경 검토안은 상장 경과 기간을 기존 12개월 경과 필요에서 6개월 경과로 단축하고, 수익성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 상위 100위 수준으로, 현재 해당 종목은 인튜이티브(시가총액 1,115억 달러)이다.

표 2. S&P 패스트 트랙 관련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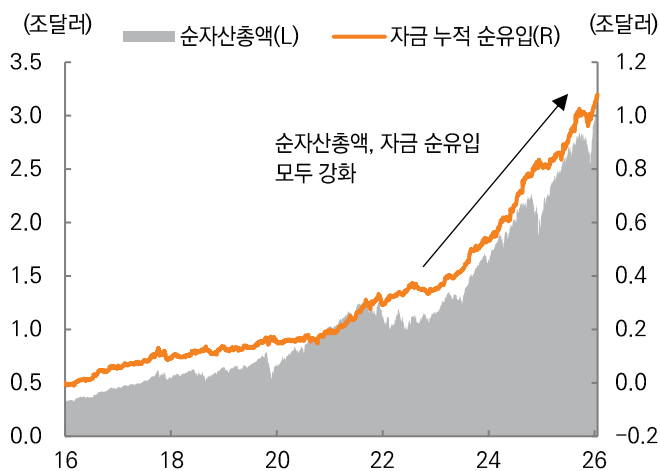
항목	기존	변경 검토안
IPO 상장 경과 기간	상장 후 12개월 경과 필요	상장 후 6개월 경과 시 가능
최소 유동주식비율(WF)	최소 0.10 필요	MegaCap 기업은 면제 가능
수익성(Financial Viability) 요건	최근 분기 흑자+최근 4개 분기 누적 흑자	MegaCap 기업은 면제 가능
적용 대상	전체 기업 동일 기준 적용	시총 상위 100위 수준 MegaCap IPO 우대
의견 수렴 기간/시행 가능 시점	-	2026년 5월 28일까지, 6/8 가능성

자료: S&P Dow Jones

패스트 트랙 도입은 신규 상장 예정인 초대형주에 수급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림 1>의 5개 주요 S&P 500, 나스닥 100 ETF의 합산 순자산총액은 3조 1,138억 달러(약 4,671조 원)에 달한다. 시가총액 1조 달러 규모의 신규 종목이 편입될 경우 상장 초기(나스닥 100 수요) 129억 달러, 상장 6개월 시점(S&P 500 수요) 356억 달러(총 485억 달러)의 매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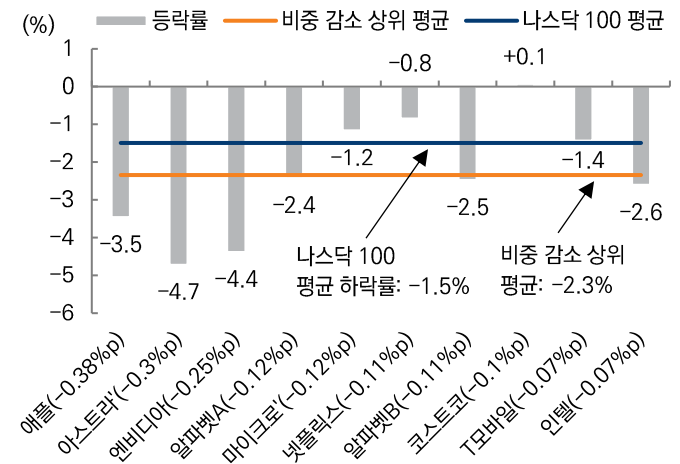
최근 10년 IPO 규모 상위 종목의 상장 시점 유통 가능 물량 비중이 10~40% 선이었음을 고려하면, 초기 수급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S&P의 변경안 '상장 후 6개월'은 일반적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집중 해제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신규 편입에 따른 매수 수요가 보호 예수 해제 물량에 대한 완충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1. 주요 S&P 500, 나스닥 100 ETF 순자산총액, 자금 추이



주: S&P 500(VOO, SPY, IVV US), 나스닥 100(QQQ, QQQM US) 합산,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월마트(WMT) 나스닥 100 편입일(1/20) 주가 동향



주: 괄호 안은 직전 거래일 대비 편입 비중 축소 폭(%p), '아스트라'는 아스트라제네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기존 지수 편입 종목은 편입 발표 전후, 실제 편입일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은 대표 지수의 신규 편입은 대체로 기존 종목과의 1:1 교체 형태로 진행된다. 신규 편입 종목의 시가총액이 편입 종목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편입 종목을 기존 비중만으로는 신규 편입 종목의 배분 비중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족분은 기존 편입 종목의 비중 축소로 충당되어 기존 편입 종목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 신규 상장 종목의 편입 비중이 높을수록 기존 종목의 수급 이탈 효과는 커진다.

<그림 2>는 2026년 1월 월마트의 나스닥 100 편입일(1/20) 편입 비중 축소 상위 종목의 수익률이다. 당시 월마트의 시가총액은 9,461억 달러, 편입 비중은 약 3.6%였다. 편입일 당일 비중 감소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하락률은 -2.3%로 나스닥 100 편입 종목 평균 하락률(-1.5%) 대비 높았다. 미변동·증가군의 평균 하락률 -1.26% 대비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비중 변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주 IPO가 지속적으로 대표 지수 편입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편입 종목은 수급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현재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ETF에서 편입 비중 상위 50개 종목은 다음 장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S&P 500 ETF(VOO US), 나스닥 100 ETF(QQQ US) 편입 비중 상위 50 (비중: %, 시가총액: 십억달러, 2026.5.19 기준)

S&P 500 ETF(VOO US) 편입 비중 상위 50				나스닥 100 ETF(QQQ US) 편입 비중 상위 50			
티커	편입 종목명	비중	시가총액	티커	편입 종목명	비중	시가총액
NVDA	NVIDIA	7.84	5,343	NVDA	NVIDIA	8.99	5,343
AAPL	Apple	6.44	4,391	AAPL	Apple	7.27	4,391
MSFT	Microsoft	4.89	3,101	MSFT	Microsoft	5.23	3,101
AMZN	Amazon.com	4.18	2,790	AMZN	Amazon.com	4.73	2,790
GOOGL	Alphabet A	3.62	4,681	GOOGL	Alphabet A	3.84	4,681
AVGO	Broadcom	3.20	1,946	GOOG	Alphabet C	3.56	4,681
GOOG	Alphabet C	2.89	4,681	MU	Micron Technology	3.52	788
META	Meta Platforms	2.16	1,530	TSLA	Tesla	3.40	1,518
TSLA	Tesla	1.73	1,518	AVGO	Broadcom	3.32	1,946
BRK/B	Berkshire Hathaway B	1.40	1,036	AMD	Advanced Micro Devices	3.15	675
JPM	JPMorgan Chase & Co.	1.27	792	META	Meta Platforms	3.00	1,530
LLY	Eli Lilly and	1.20	962	WMT	Walmart	2.99	1,070
XOM	Exxon Mobil	1.04	674	INTC	Intel	2.48	557
MU	Micron Technology	0.94	788	COST	Costco Wholesale	2.19	485
WMT	Walmart	0.93	1,070	CSCO	Cisco Systems	2.16	455
AMD	Advanced Micro Devices	0.93	675	NFLX	Netflix	1.74	376
JNJ	Johnson & Johnson	0.90	554	LRCX	Lam Research	1.59	342
V	Visa	0.88	637	AMAT	Applied Materials	1.51	323
COST	Costco Wholesale	0.73	485	PLTR	Palantir Technologies	1.42	324
INTC	Intel	0.72	557	TXN	Texas Instruments	1.25	275
CAT	Caterpillar	0.67	396	LIN	Linde	1.09	234
MA	Mastercard	0.66	442	KLAC	KLA	1.06	227
NFLX	Netflix	0.64	376	QCOM	QUALCOMM	1.00	206
ABBV	AbbVie	0.60	378	TMUS	T-Mobile US	0.96	209
CVX	Chevron	0.59	393	ADI	Analog Devices	0.94	202
CSCO	Cisco Systems	0.58	455	PEP	PepsiCo	0.94	206
BAC	Bank of America	0.56	360	PANW	Palo Alto Networks	0.93	196
PG	Procter & Gamble	0.55	329	SNDK	SanDisk	0.90	205
UNH	UnitedHealth Group	0.54	353	AMGN	Amgen	0.80	179
HD	Home Depot	0.53	301	STX	Seagate Technology	0.74	164
LRCX	Lam Research	0.52	342	GILD	Gilead Sciences	0.74	162
PLTR	Palantir Technologies	0.51	324	ISRG	Intuitive Surgical	0.72	156
AMAT	Applied Materials	0.51	323	CRWD	CrowdStrike	0.72	157
KO	Coca-Cola	0.49	352	WDC	Western Digital	0.71	157
GE	GE Aerospace	0.49	298	APP	AppLovin	0.69	160
GEV	GE Vernova	0.47	272	MRVL	Marvell Technology	0.68	158
ORCL	Oracle	0.44	522	HON	Honeywell International	0.63	138
MRK	Merck & Co.	0.44	282	ASML	ASML Holding	0.59	566
GS	Goldman Sachs Group	0.43	285	SHOP	Shopify	0.58	131
PM	Philip Morris International	0.42	299	BKNG	Booking	0.56	120
TXN	Texas Instruments	0.41	275	SBUX	Starbucks	0.56	121
WFC	Wells Fargo & Company	0.41	228	INTU	Intuit	0.51	111
RTX	RTX	0.38	235	VRTX	Vertex Pharmaceuticals	0.51	110
LIN	Linde	0.38	234	ADBE	Adobe	0.48	103
KLAC	KLA	0.37	227	CDNS	Cadence Design Systems	0.44	93
MS	Morgan Stanley	0.37	299	SNPS	Synopsys	0.44	95
PEP	PepsiCo	0.35	206	MAR	Marriott International	0.44	95
IBM	IBM	0.35	209	CEG	Constellation Energy	0.44	94
C	Citigroup	0.34	205	FTNT	Fortinet	0.43	94
MCD	McDonald's	0.34	200	ADP	Automatic Data Processing	0.41	88

자료: Bloomberg, ETFdb.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